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은 지방 행정을 위한 공간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 단위를 일치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광역 행정 체계는 도를 기반으로 한 조선 시대 행정 구역 체계를 현대의 행정 구역 체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1945년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은 1특별시, 15도, 23부, 218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듬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48년 부가 시로 일괄 개칭되었다.

1962년 정부는 생활권과 행정 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강원도의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행정 구역 개편은 주로 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외화 등으로 인한 도시 확장에 기인한다. 인구가 증가한 소도읍이 시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며, 인구가 증가한 대도시는 도의 관할 아래에서 직할시로 승격됨으로써 직접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60년대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1960년대 말 1특별시(서울특별시), 1직할시(부산직할시), 9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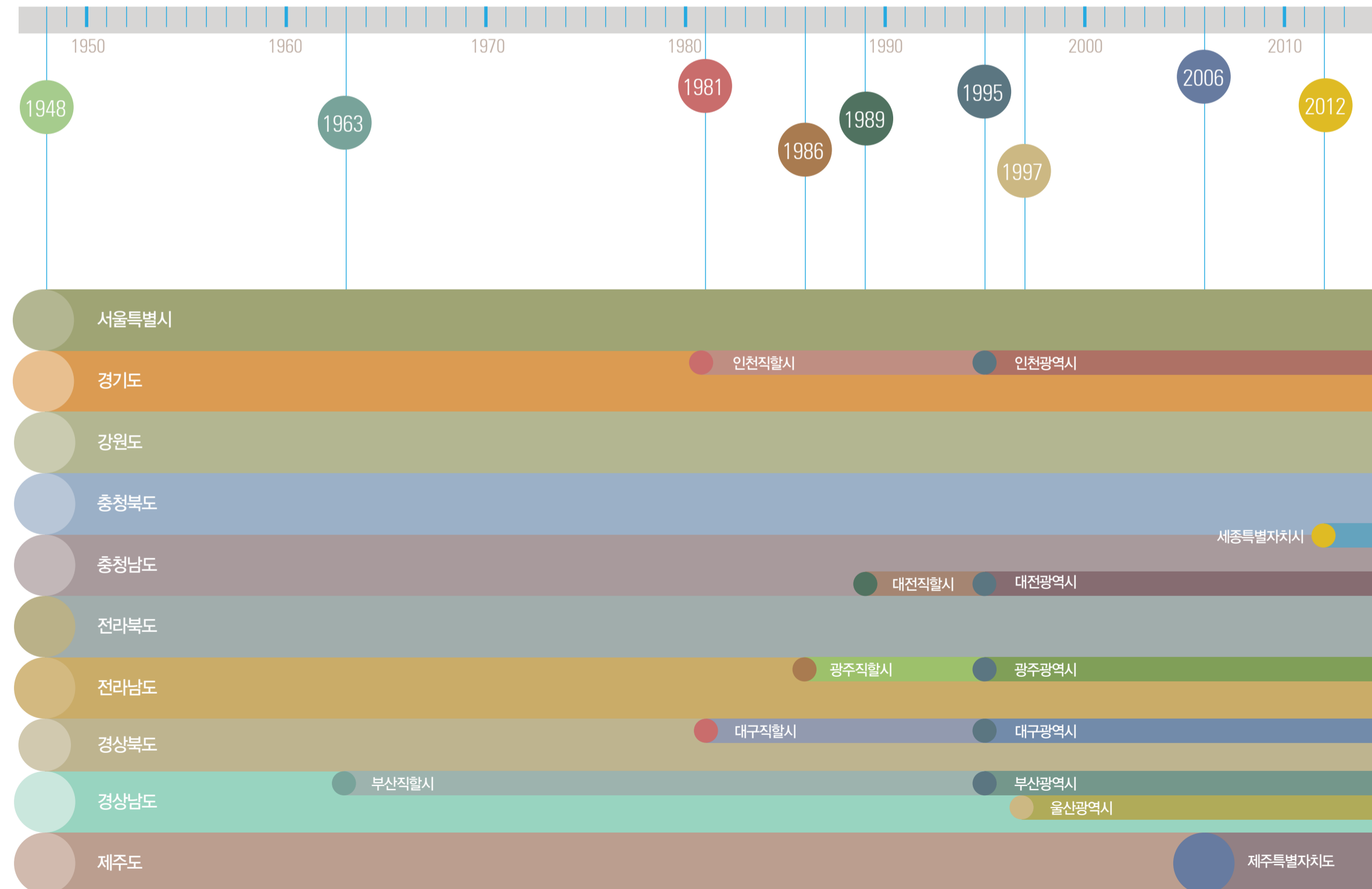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0시, 140군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들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62년 이후 대폭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은 1995년 이루어졌다. 이때의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은 도시와 도시의 배후지인 군 지역을 통합하여,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농촌 배후 지역의 균형 발전,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5년 대폭적인 지방

행정 구역 조정으로, 중심 도시인 시와 배후지인 군이 통합되었다. 또한 직할시는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1995년 40개의 도농 통합시가 설치되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가 광역시로 출범하였으며,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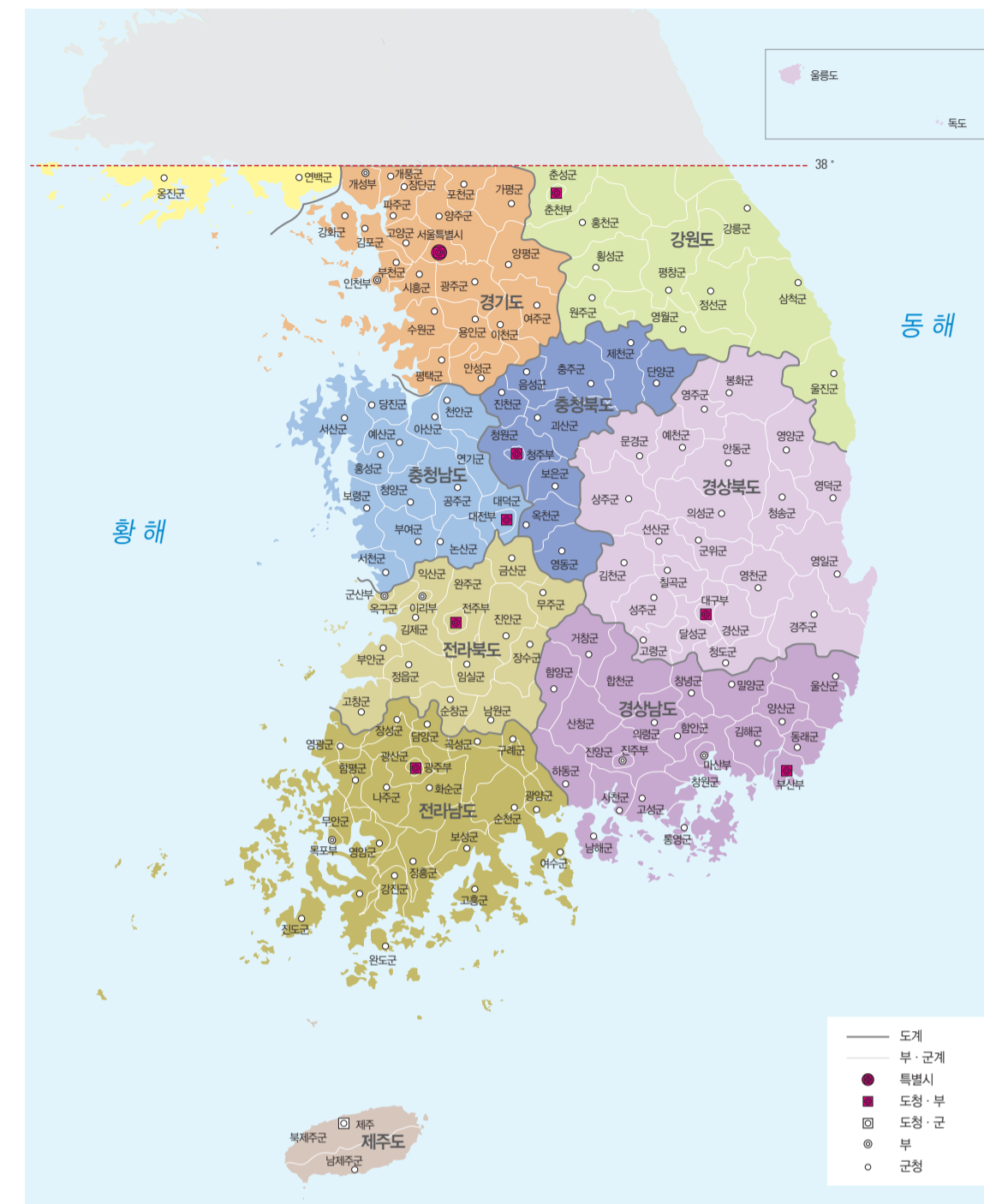
200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다.

광역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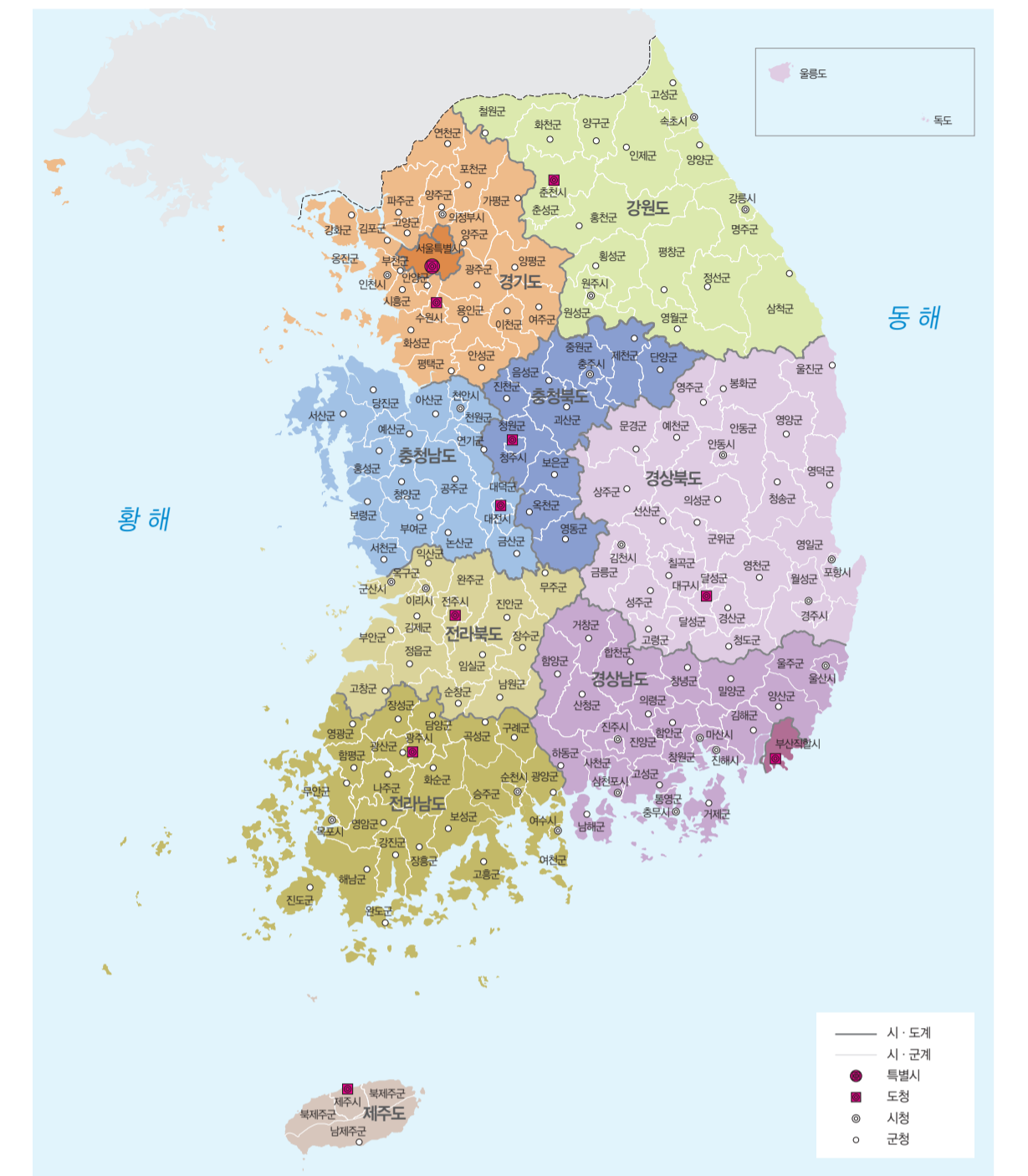


광복 이후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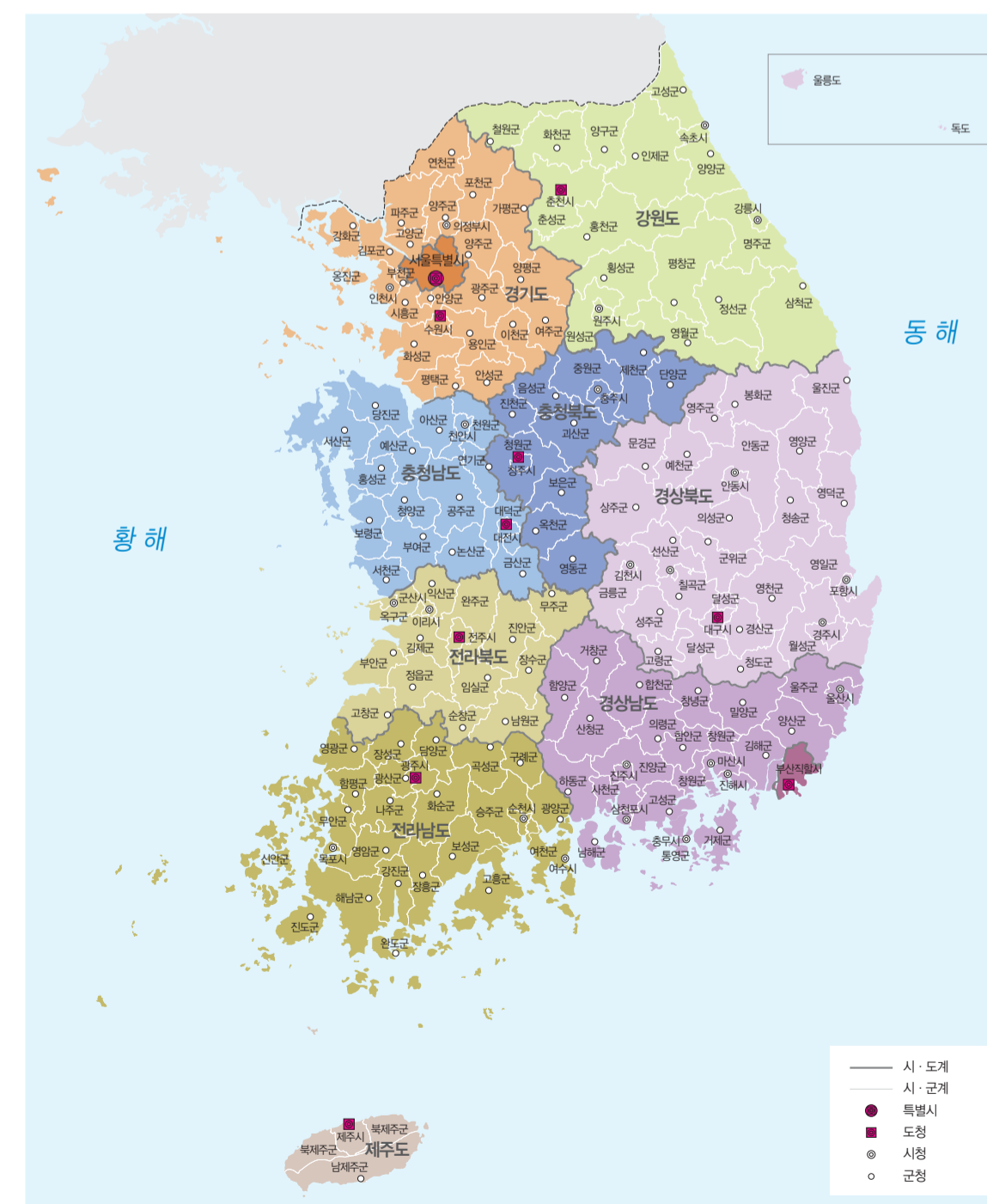
19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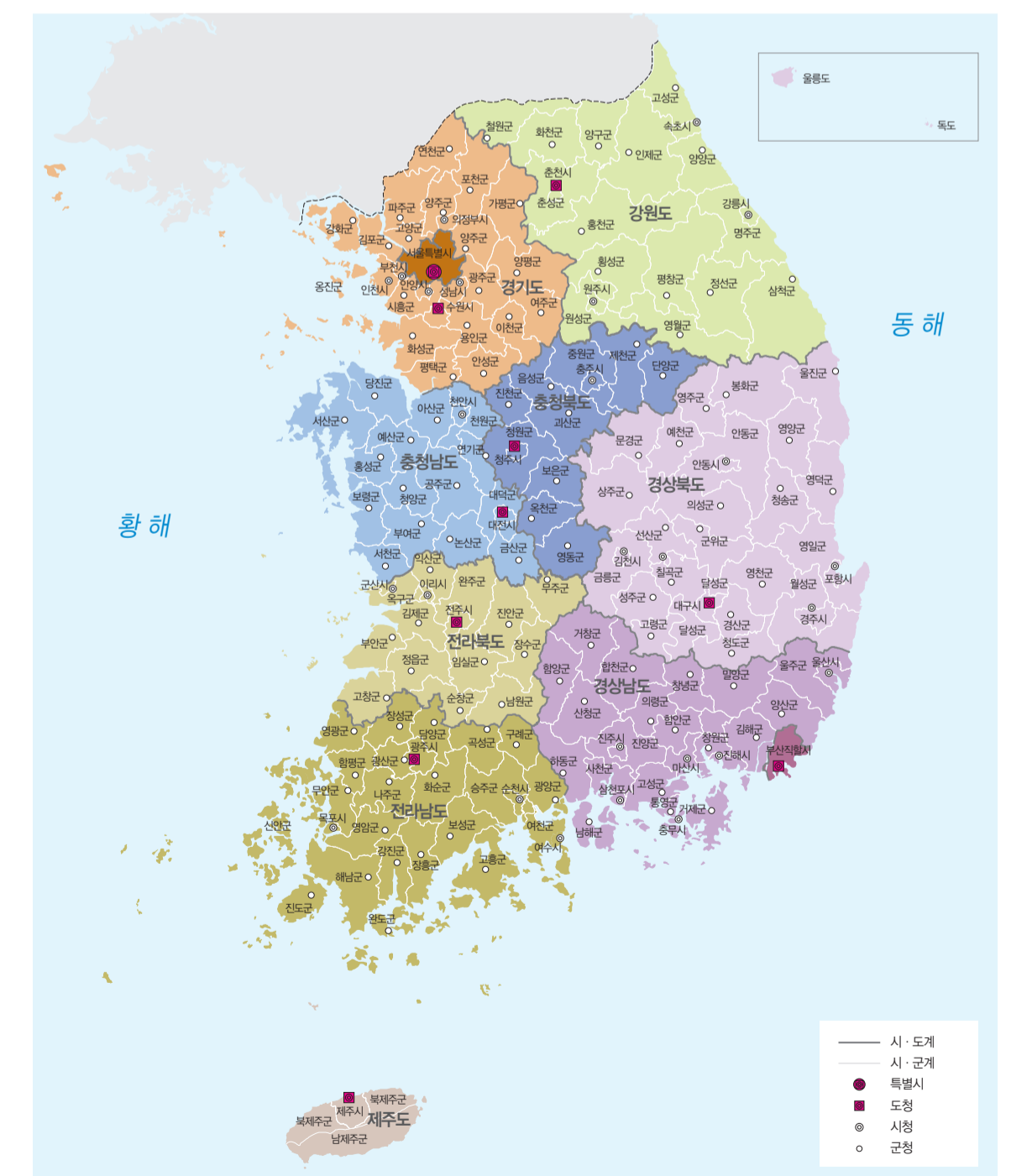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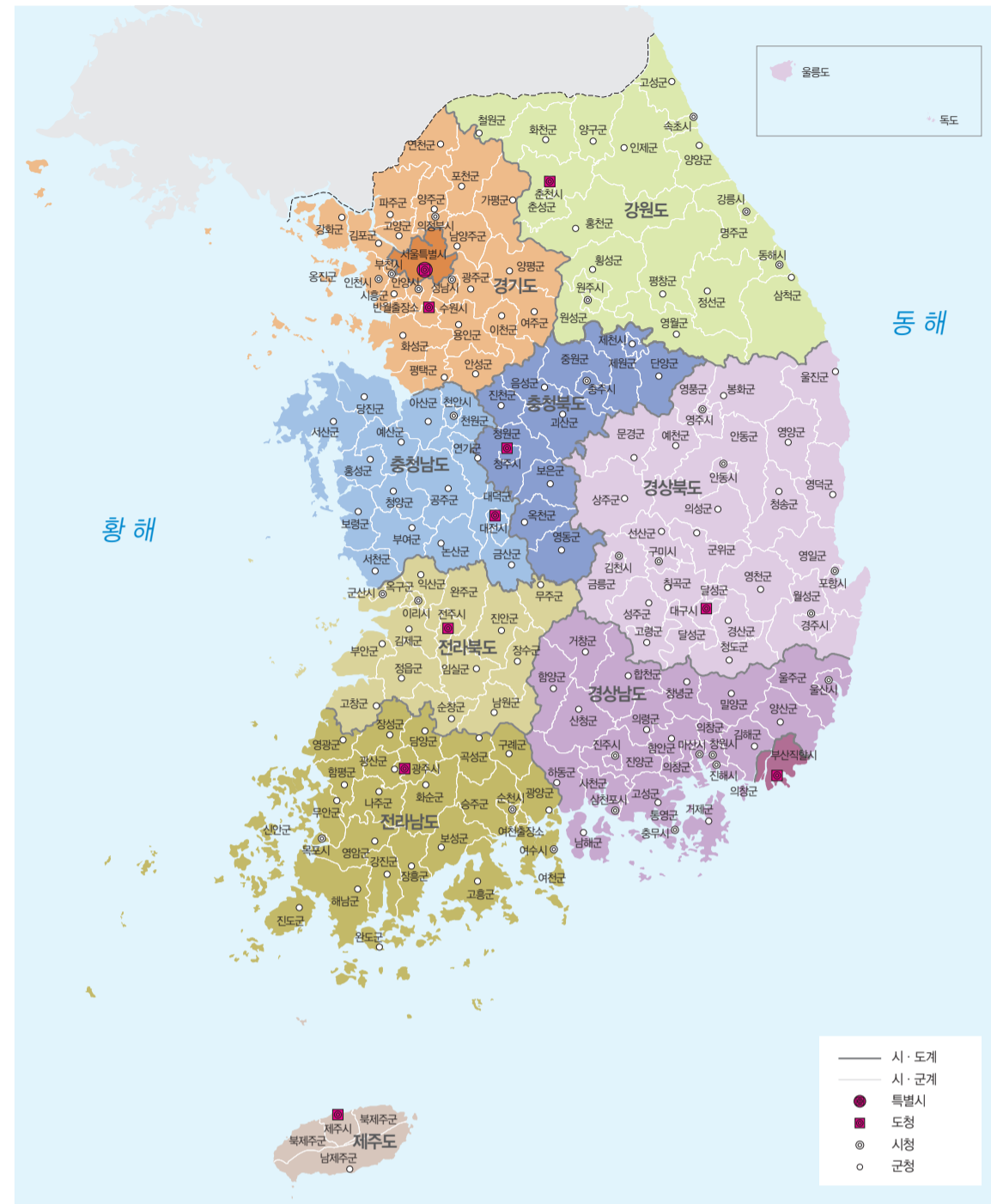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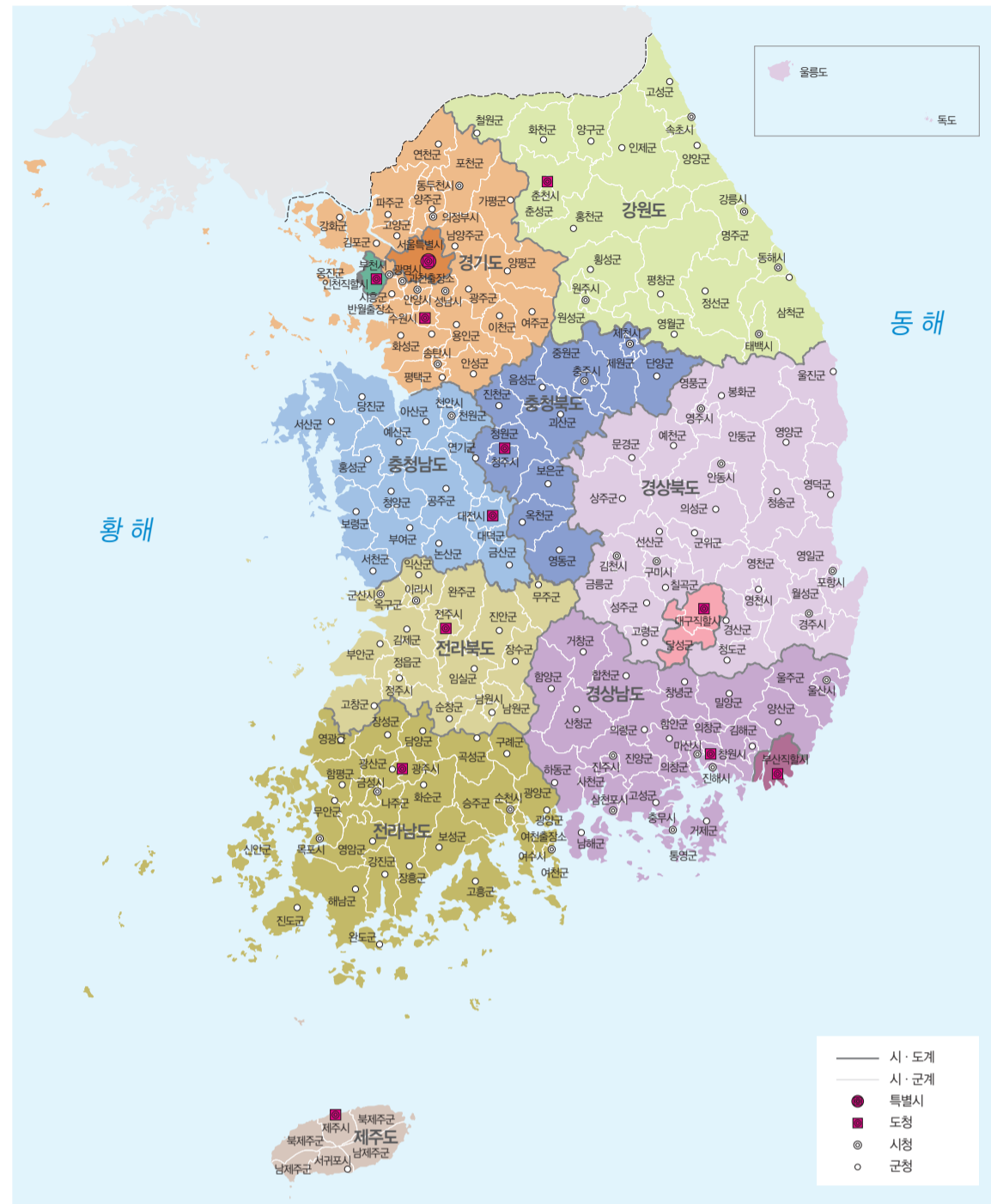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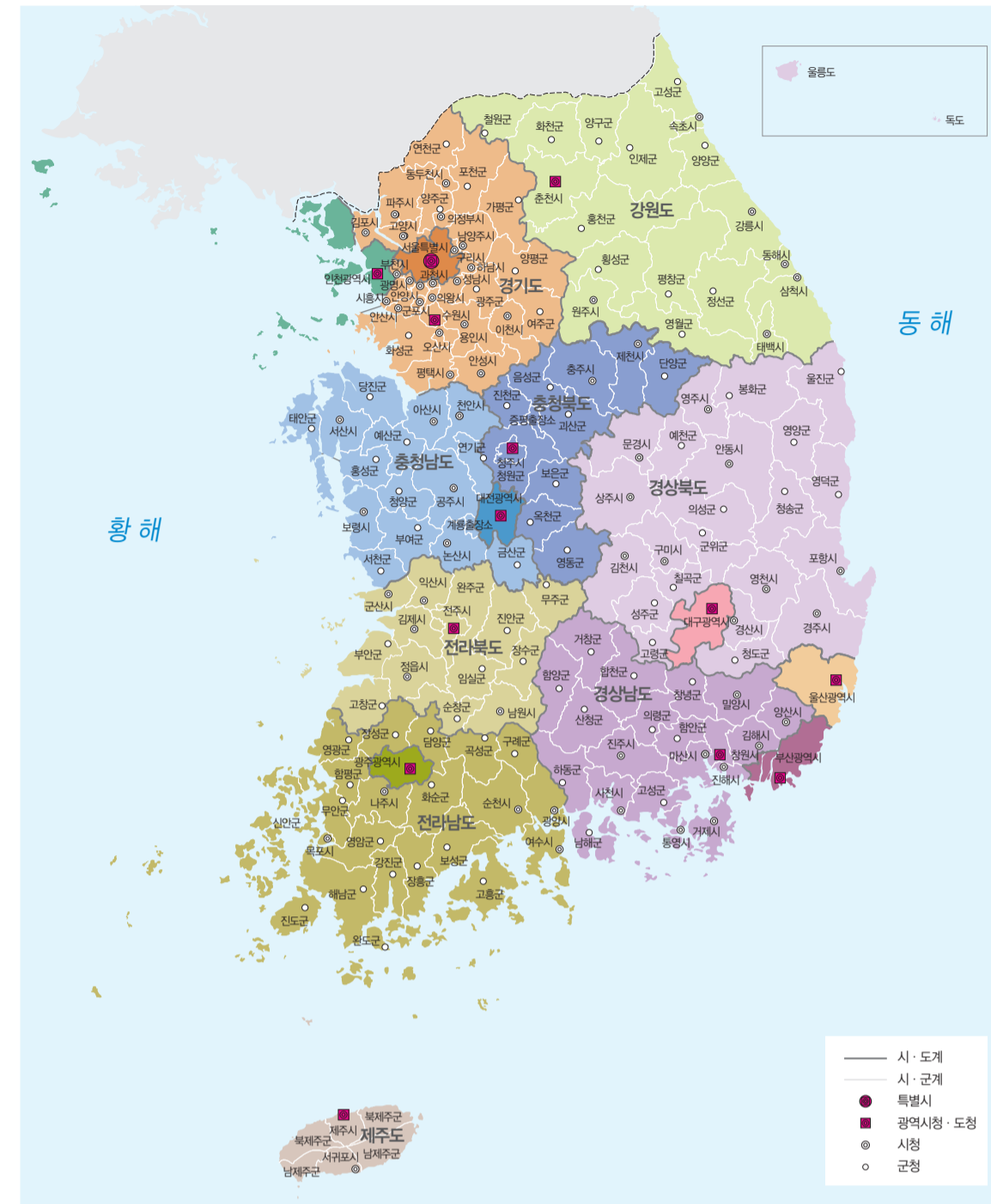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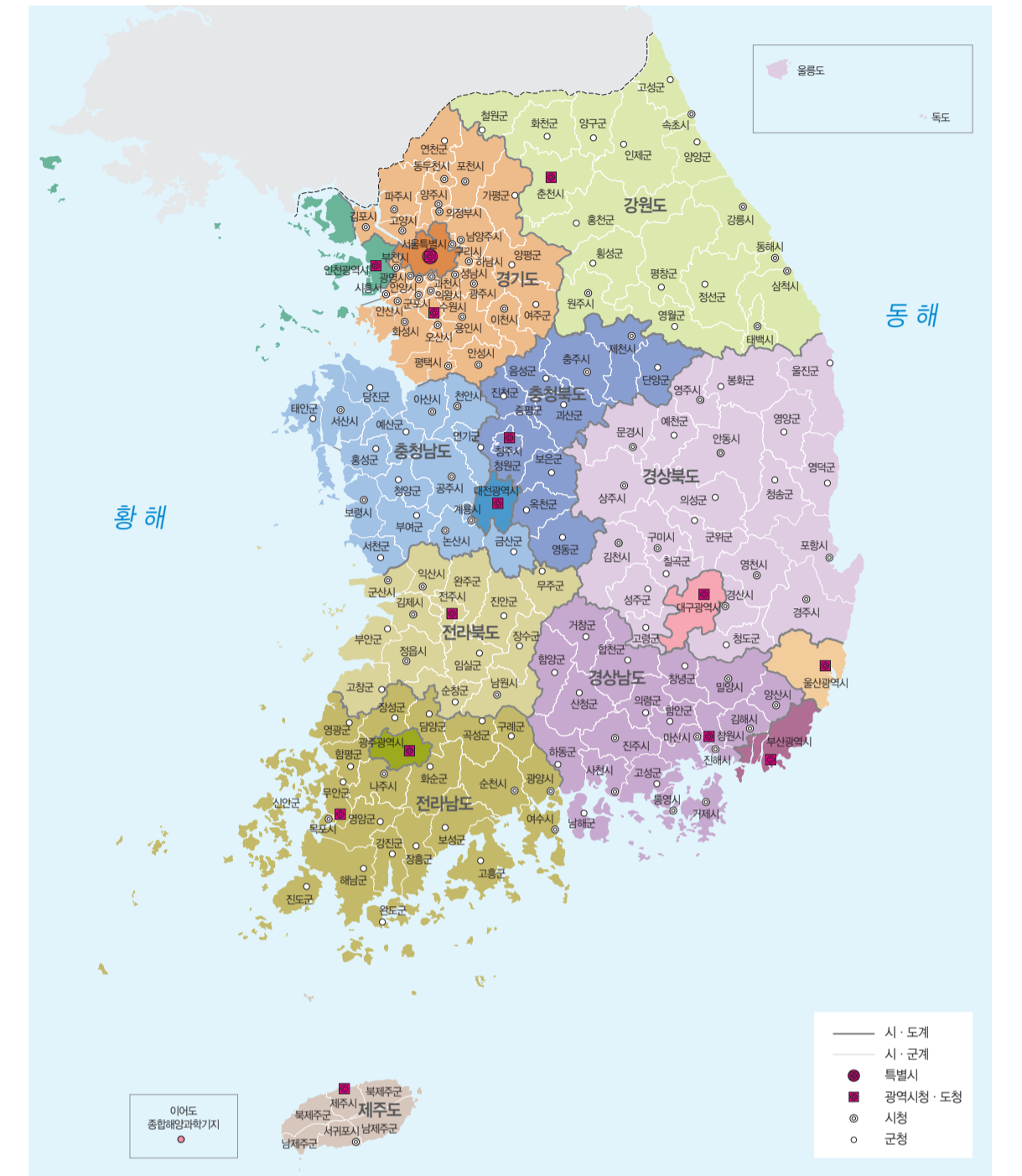
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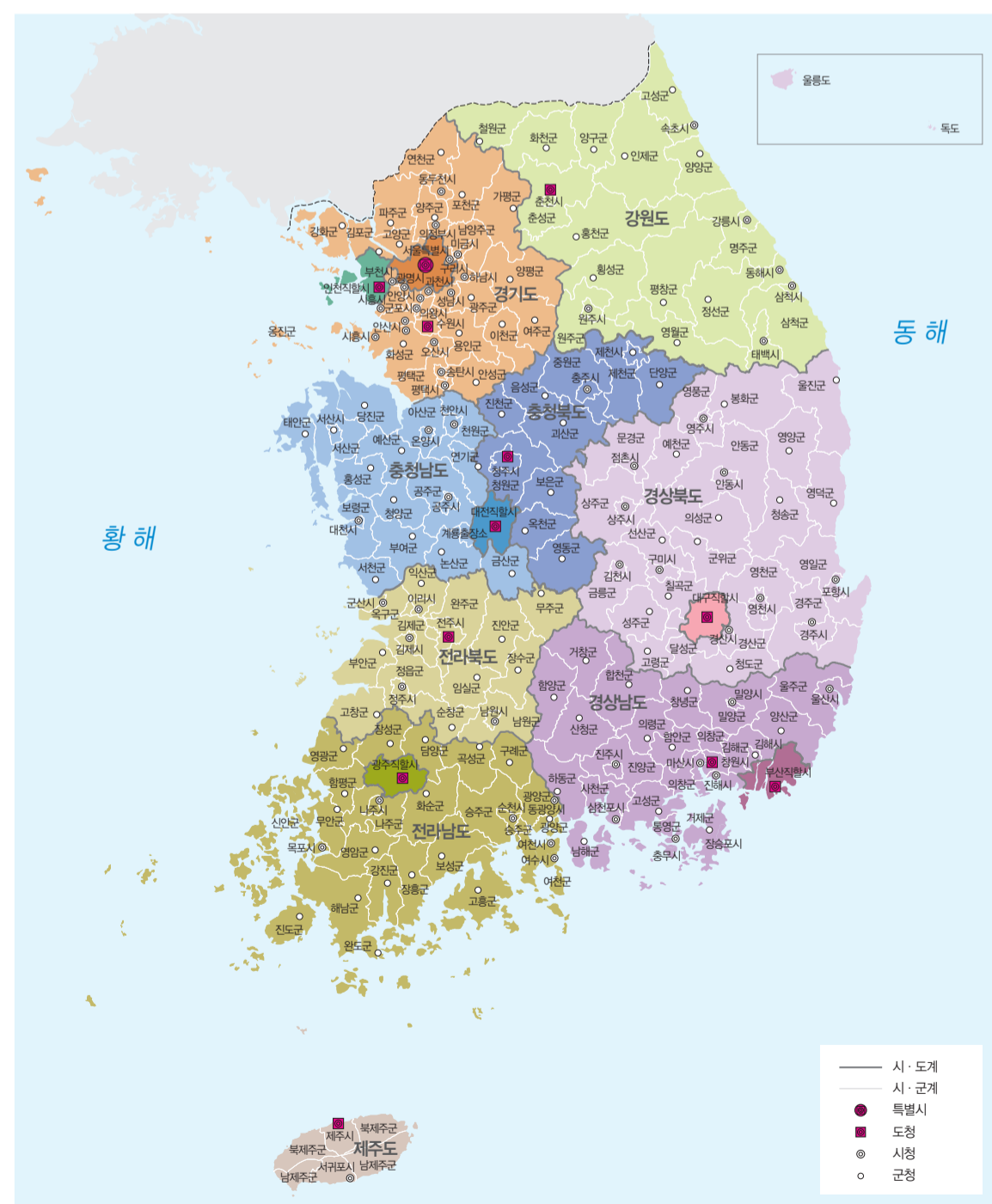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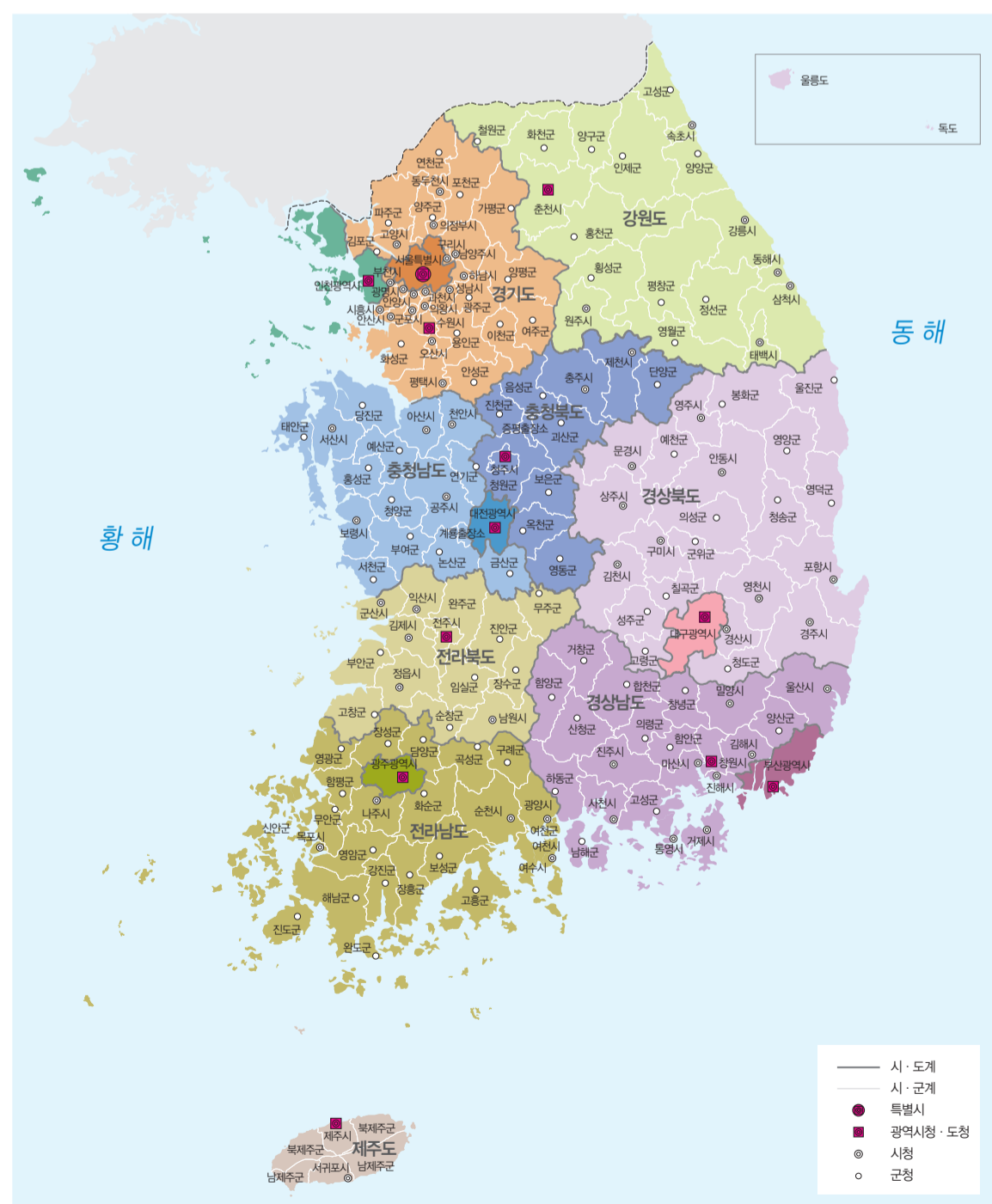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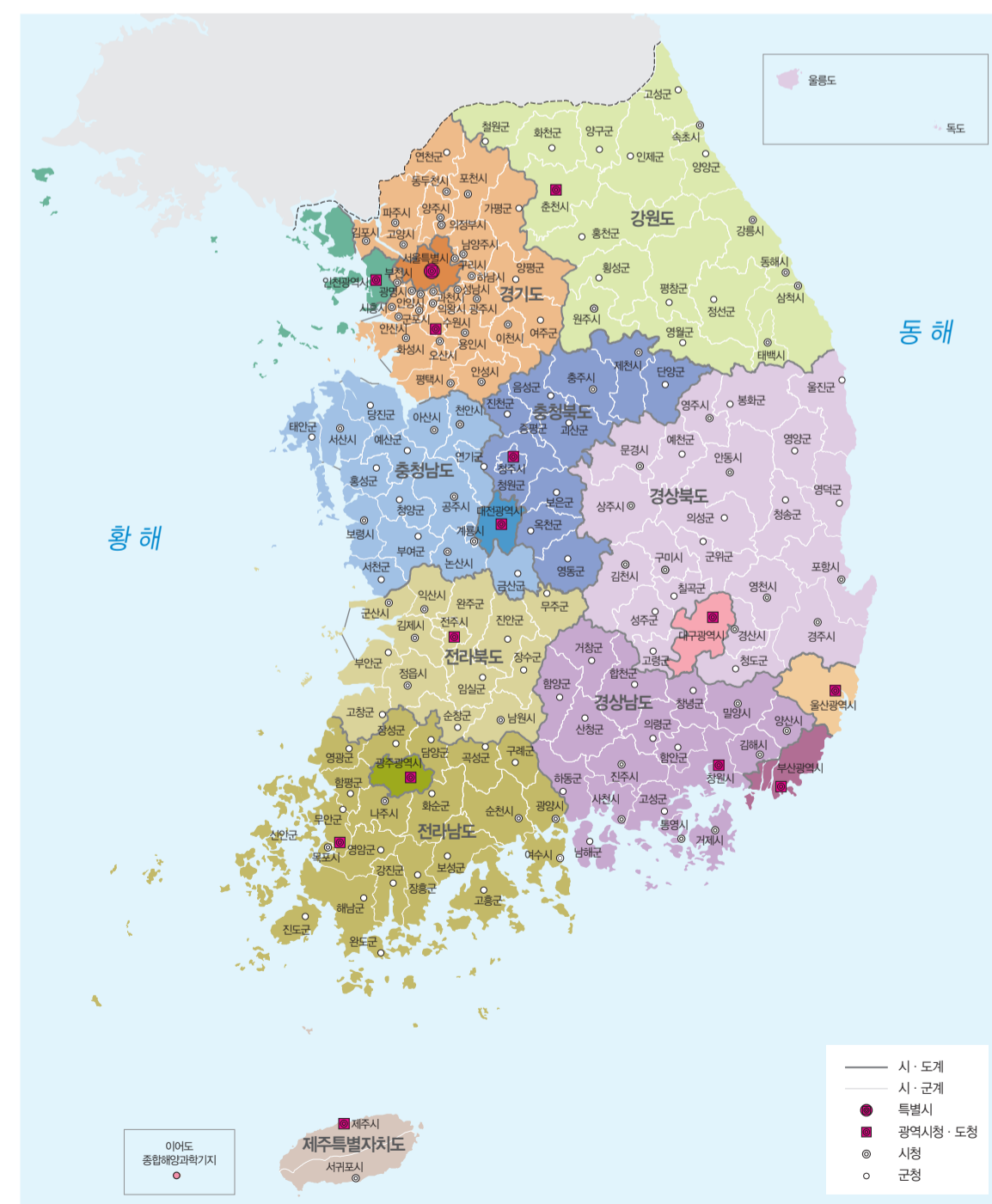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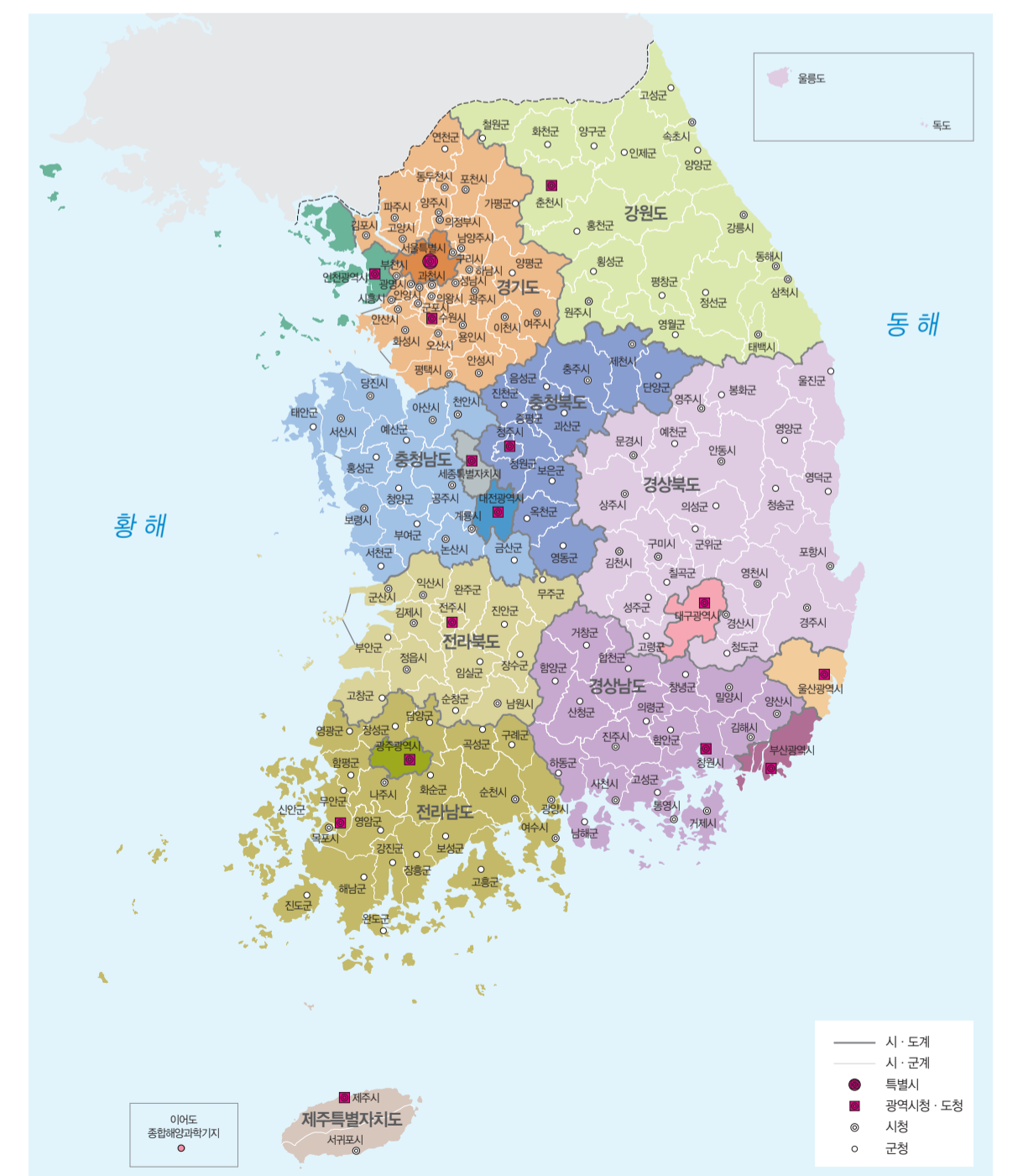
1995년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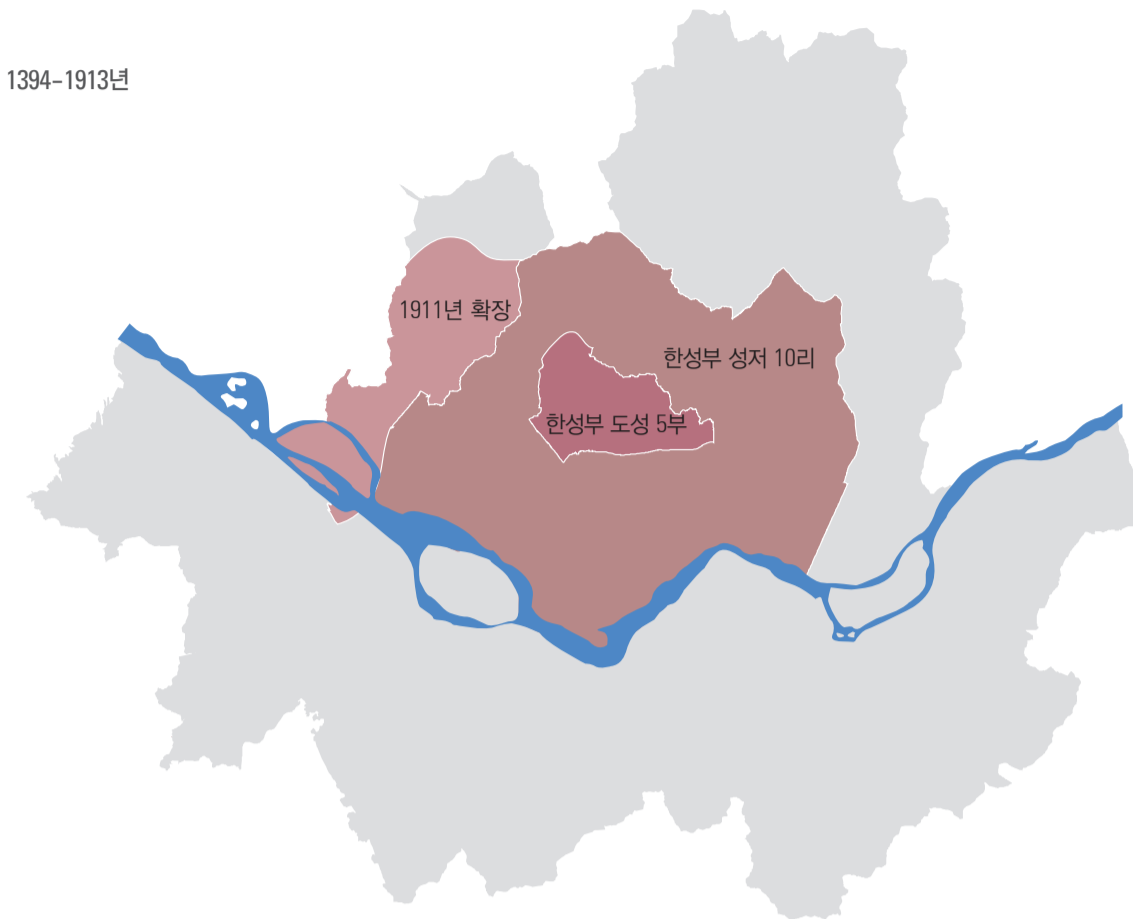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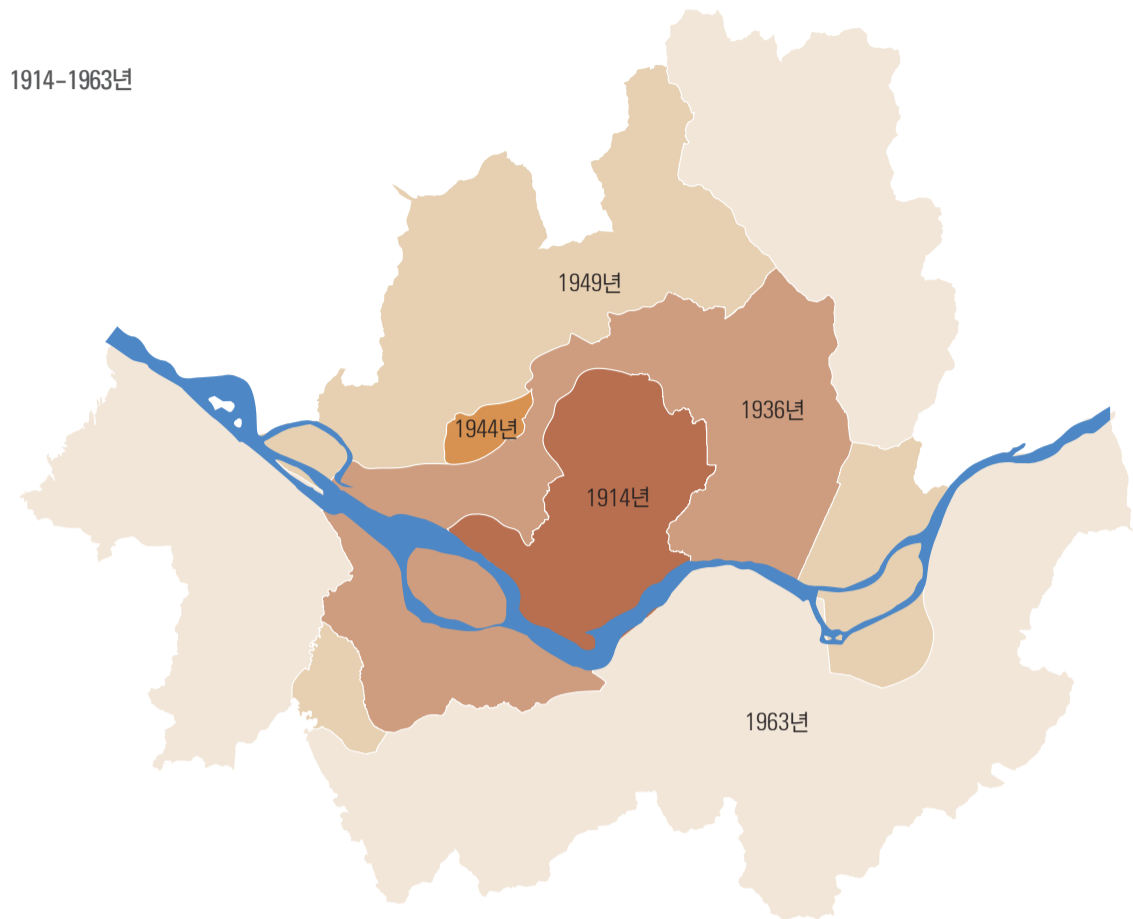
대도시의 확장

서울특별시의 확장

1394-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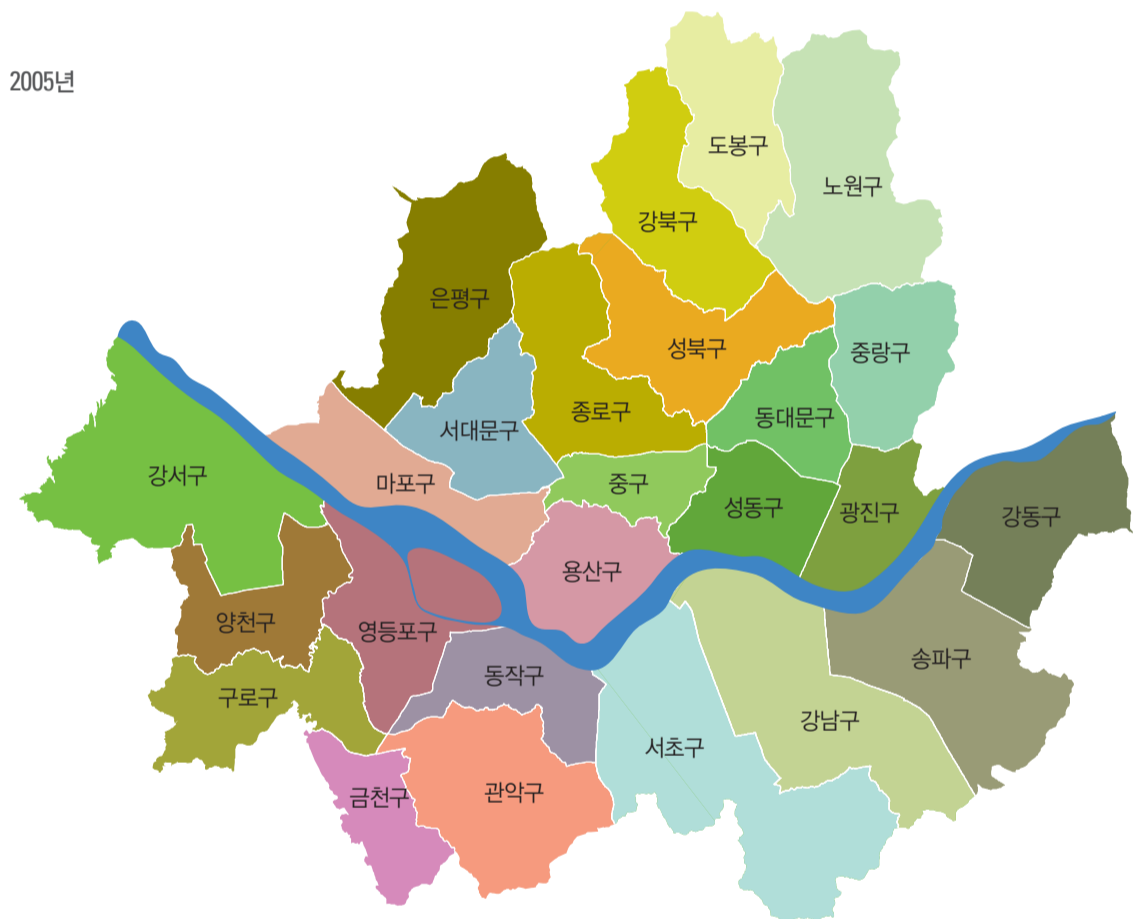
1914-1963년



1973년



2005년



서울은 근대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공간적 확장을 경험하였다. 조선 시대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정치·행정 중심인 한성부 도성 5부와 도성의 외곽 지역인 성저 10리로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19세기 말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부설되고 전차 노선이 건설되면서 서울의 공간적 범위는 성곽을 넘어 확장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다수의 택지 지구가 건설되었다. 서울의 인구는 광복 직후 90만 명 정도였으며, 해외에 거주하던 동포의 귀국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17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산업화 이전 시기에도 서울은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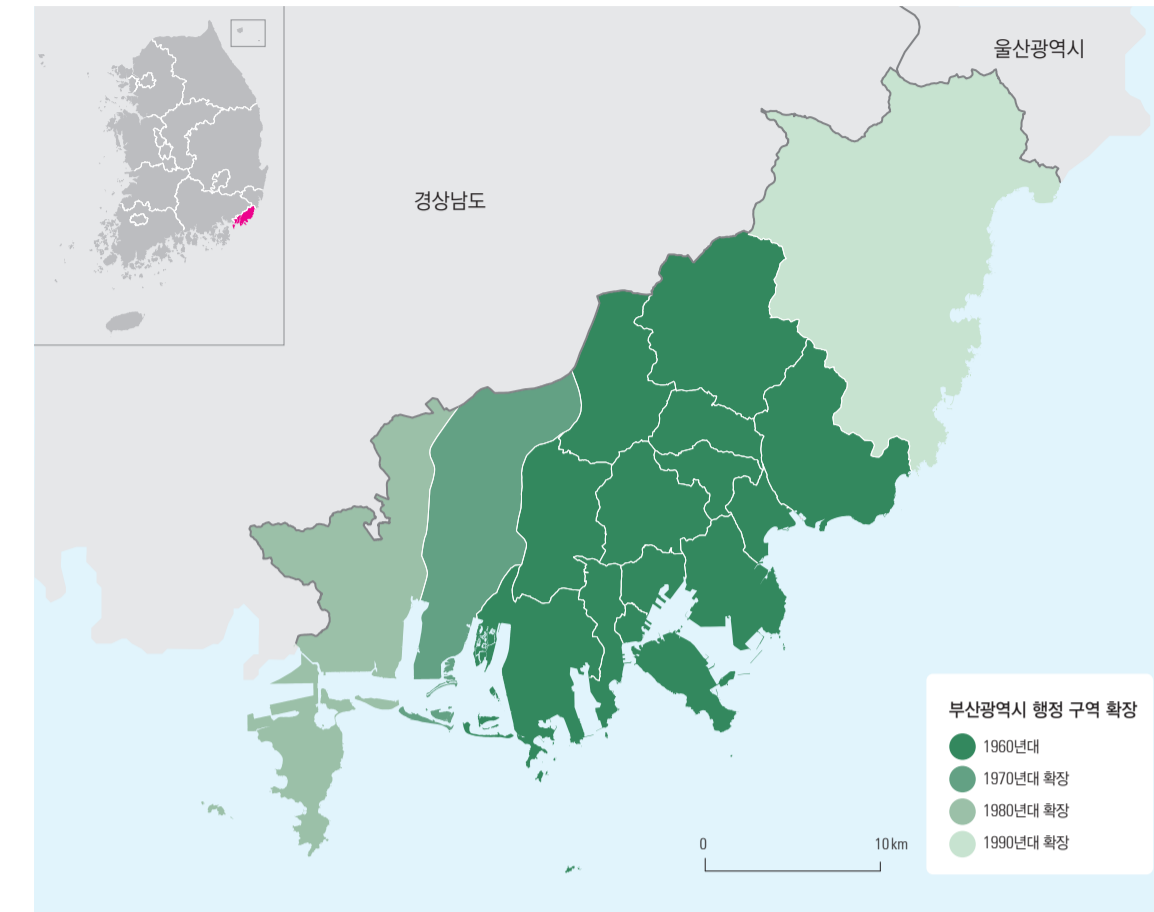
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서울로의 인구 집중은 도시 외곽의 개발로 이어졌고, 지하철의 개통은 서울의 외연적 확장을 촉진하였다. 이에 1963년 경기도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서울의 총 면적은 269km²에서 593km²가 되었고, 1973년에는 경기도 시흥군과 고양군 일부를 편입하여 605km²가 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서울의 공간적 확장과 함께 도시 내 행정 구역도 세분되었다. 1943년 7개의 구가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5개 구로 개편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6개의 광역시 역시 인구와 면적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지방의 거점 도시인 광역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에서 분리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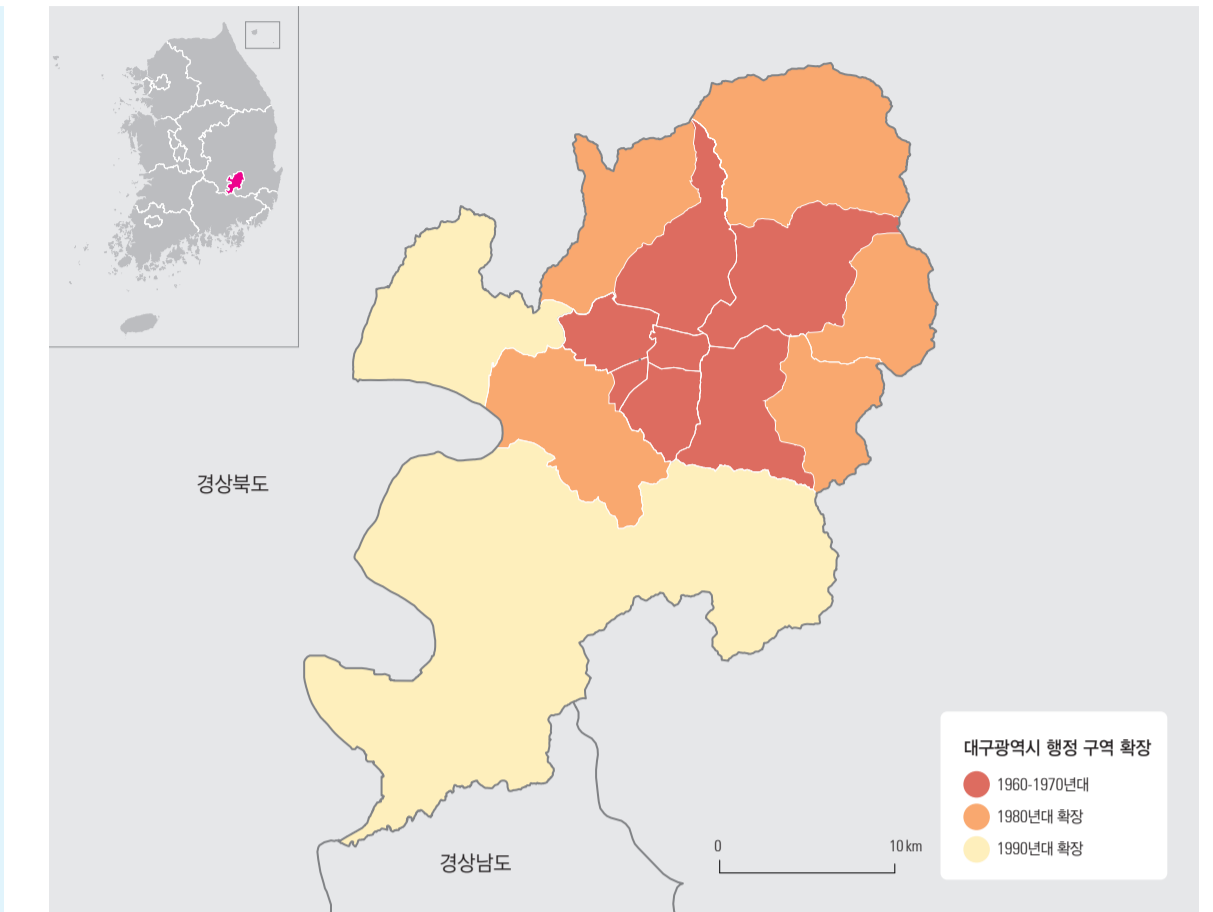
1995년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부산은 개항 이후 국제항으로서 발전해 왔으며, 지속적인 항만과 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었다. 1960년에 100만을 넘어선 부산은 1963년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인구의 증가와 함께 낙동강 삼각주 지역이 도시화되었으며, 인근 김해군, 창원군 등을 편입하여 면적이 확장되었다. 1995년 부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양산군 지역을 편입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대구광역시는 1981년 직할시 승격과 함께 달성군, 칠곡군, 경산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으며, 1995년 광역시의 출범 이후 달성군을 편입하여 시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수도권은 관문 도시인 인천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강화군과 인근 도서 지역을 편입하여 광역시로 재편되었다.

호남의 중심 도시인 광주광역시는 1949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에 부산, 대구, 인천에 이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을 편입하여 행정 구역이 대폭 확장되었으며, 1995년 광역시로 재편되었다. 대전광역시는 1949년 시로 승격된 이래 인근의 대덕군 지역을 편입하여 성장하였으며, 1989년에는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덕군 지역을 편입하였고, 1995년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울산광역시는 공업 단지의 입지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여 1962년 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 울산군과 통합하였으며,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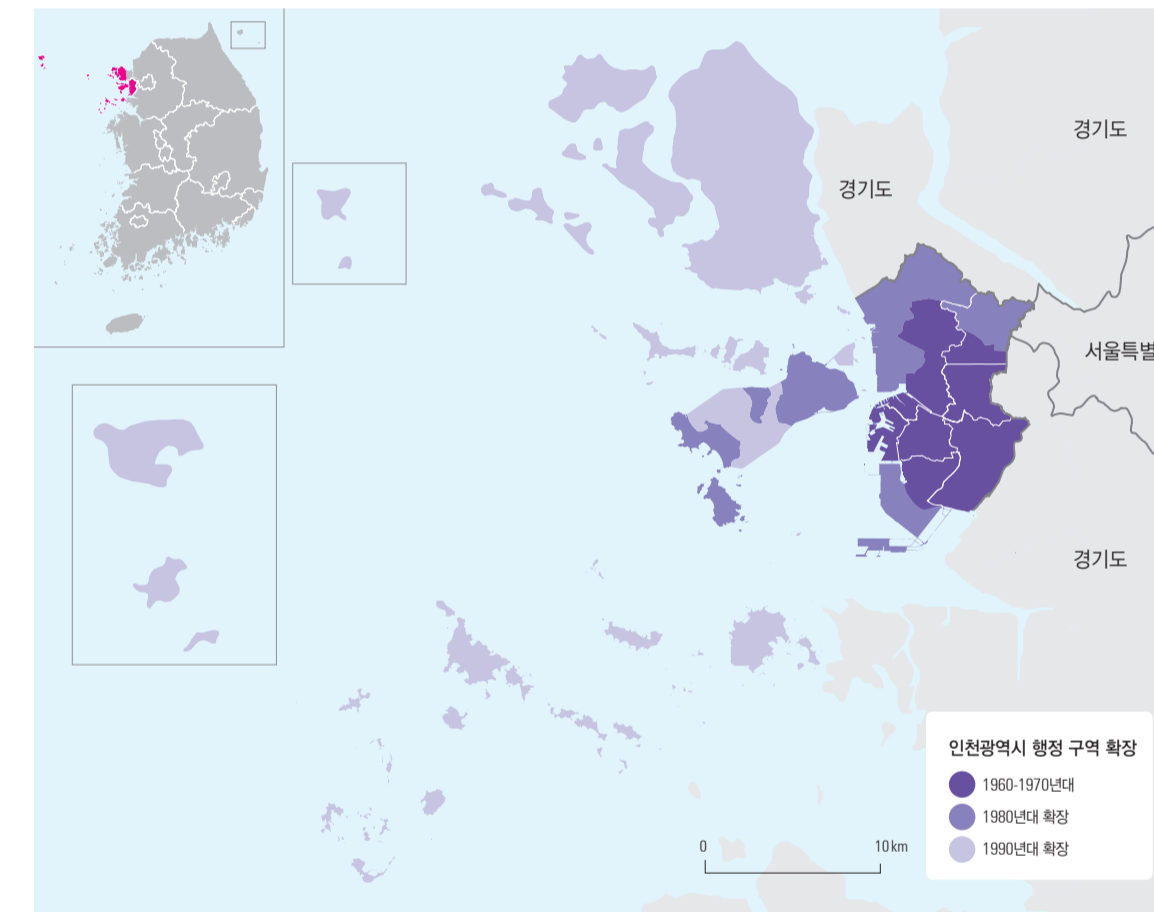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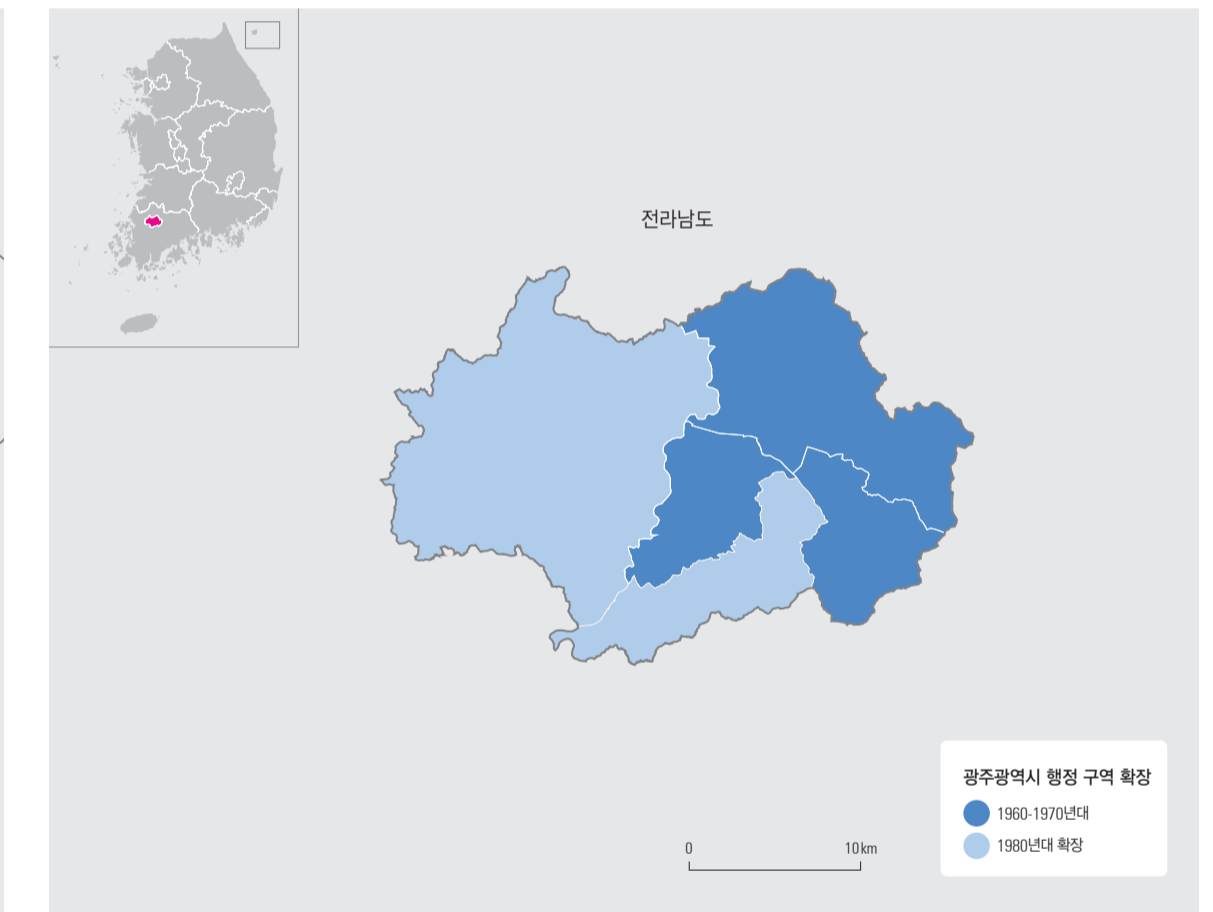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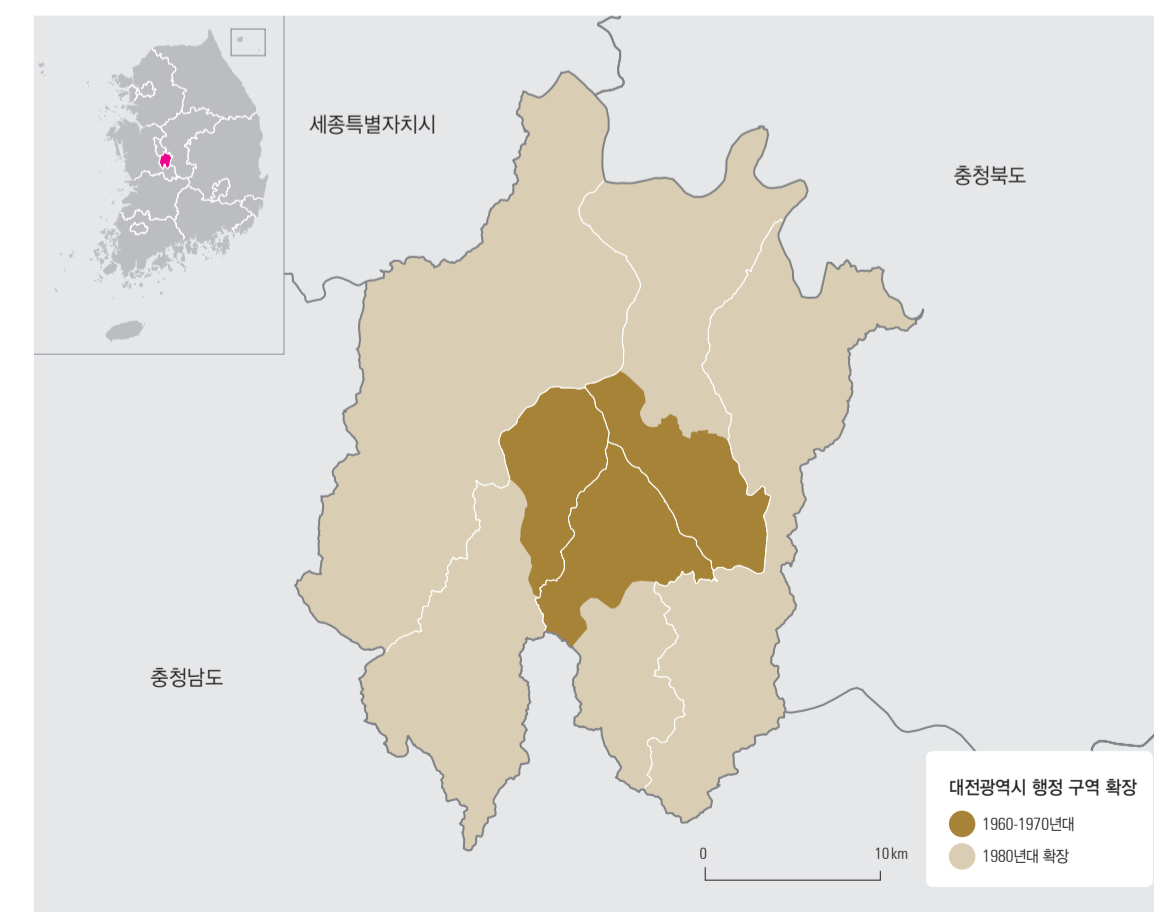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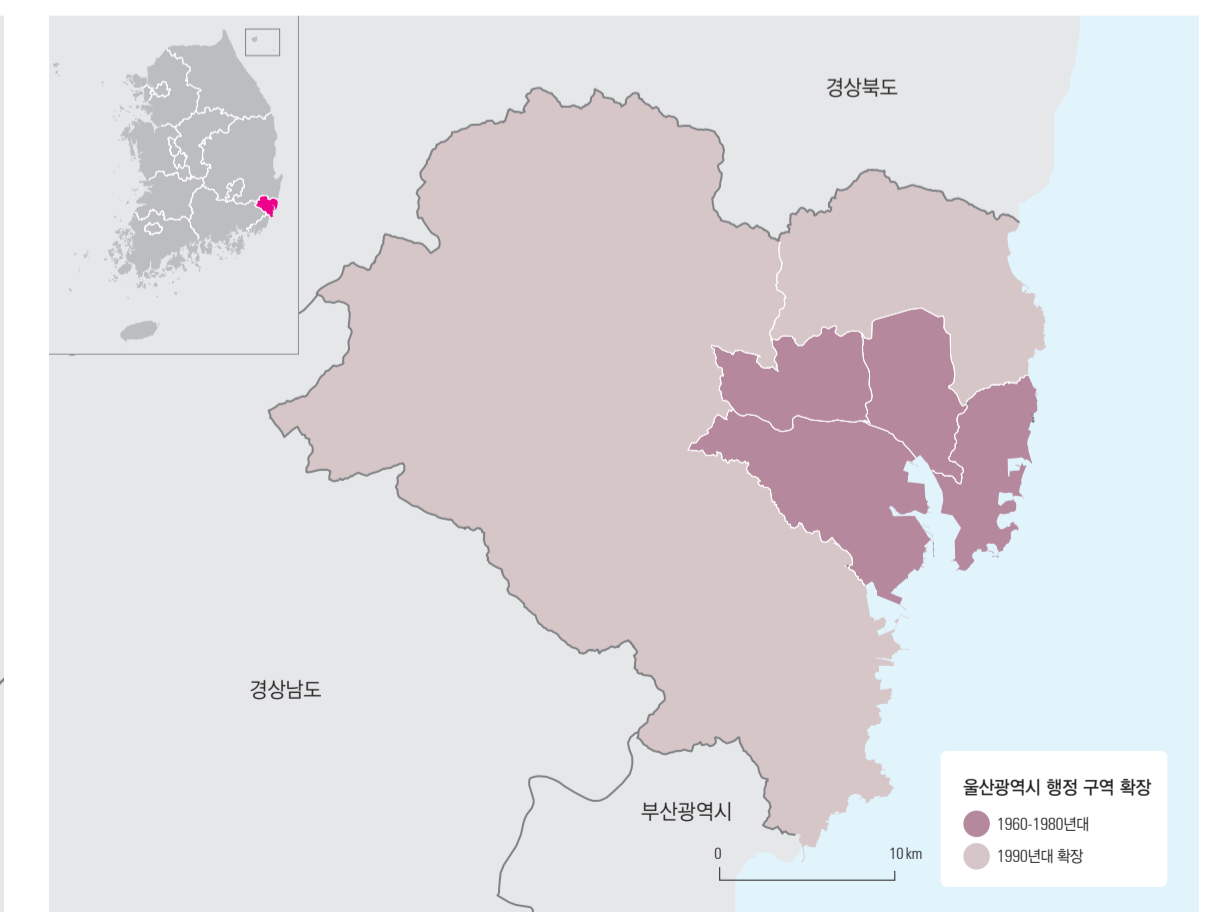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확장



대전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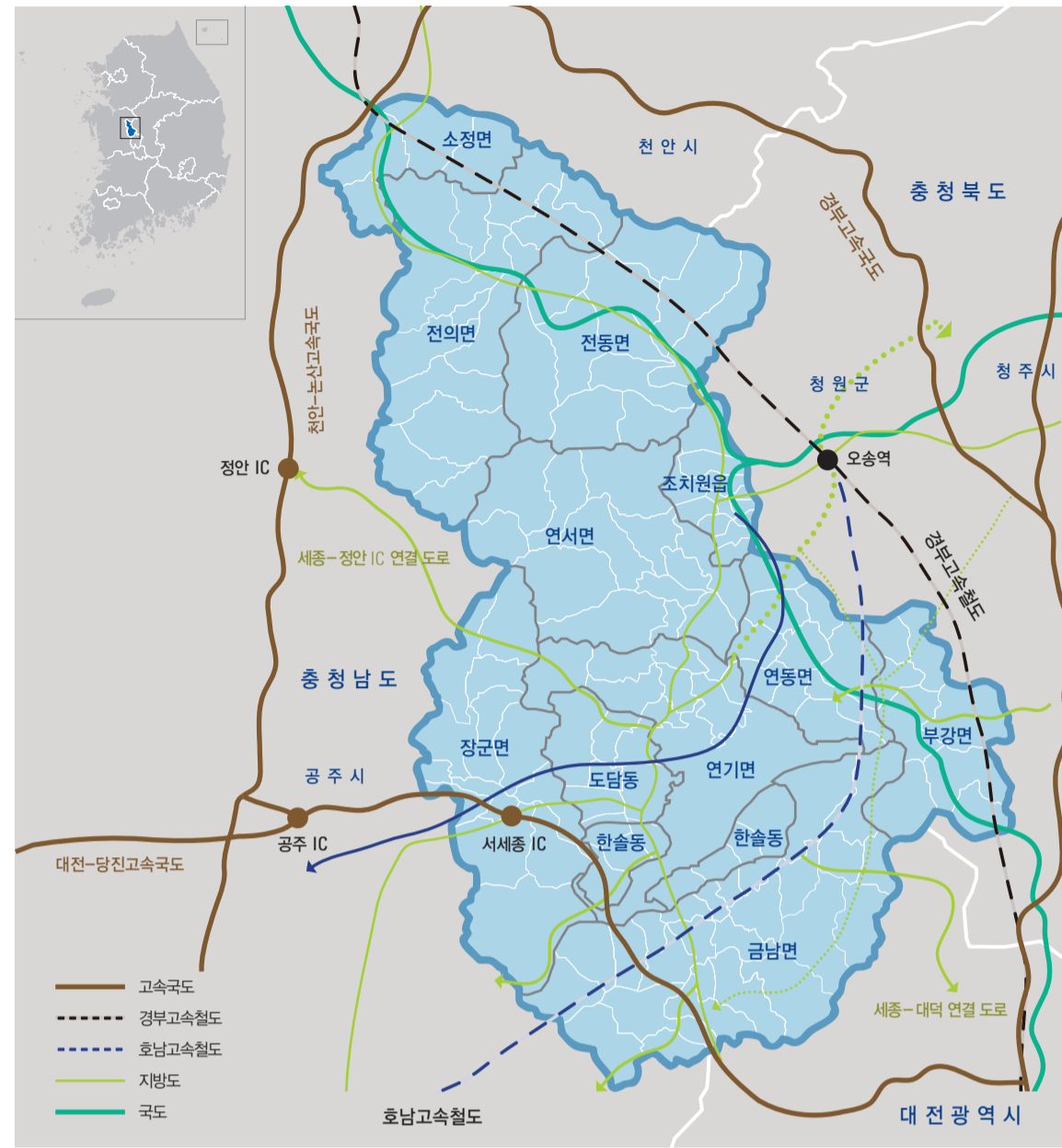


울산광역시의 확장



특별 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상세도



정부 세종 청사 전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고, 이러한 성공의 요인 중 하나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했던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이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 계획 속에서 인적·물적 자원은 서울 및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중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었으며, 수도의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의 과도한 집중과 함께, 수도 서울이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인근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실행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기-공주 지역에 실행형 수도를 건설하고 수도를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모습

하기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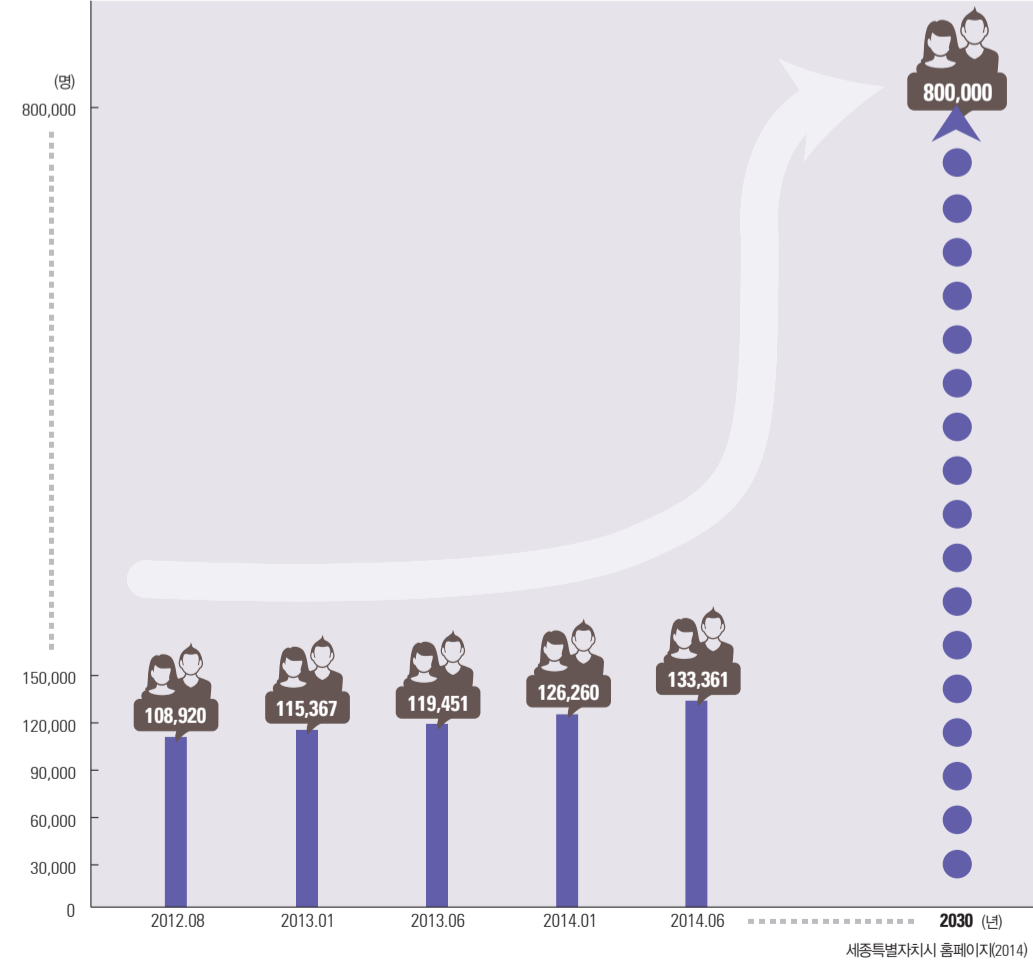
그러나 수도 이전은 행정부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결정이며,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5년 정부는 '실행형 수도' 대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여 행정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2006년에는 새로운 도시의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세종시는 국가 행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였다. 또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행정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과 정부 청사 건설 사업이 지속되었고, 행정 기관 이전 및 생활 기반 시설의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 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4년 10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145,431명이며, 장기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인구는 8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연말까지 16개 중앙 부처, 18개의 소속 기관, 14개 국책 연구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

구분	현황
인구	145,431명(2014년 10월)
가구	57,771가구
행정 구역(2014)	1읍, 9면, 2동
예산(2014)	7,604억 원 (2회 추경 예산: 9,938억 원)
재정 자립도(2014)	47.6%
교육 기관(2014)	대학교(4), 고등학교(8), 중학교(13), 초등학교(25)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



중앙 행정 기관 및 소속 기관 이전

구분	중앙 행정 기관	소속 기관
1단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국무총리비서실	복권위원회사무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임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분	중앙 행정 기관	소속 기관
2단계	보건복지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해의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업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3단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한국정행성승원(문화체육관광부), 우정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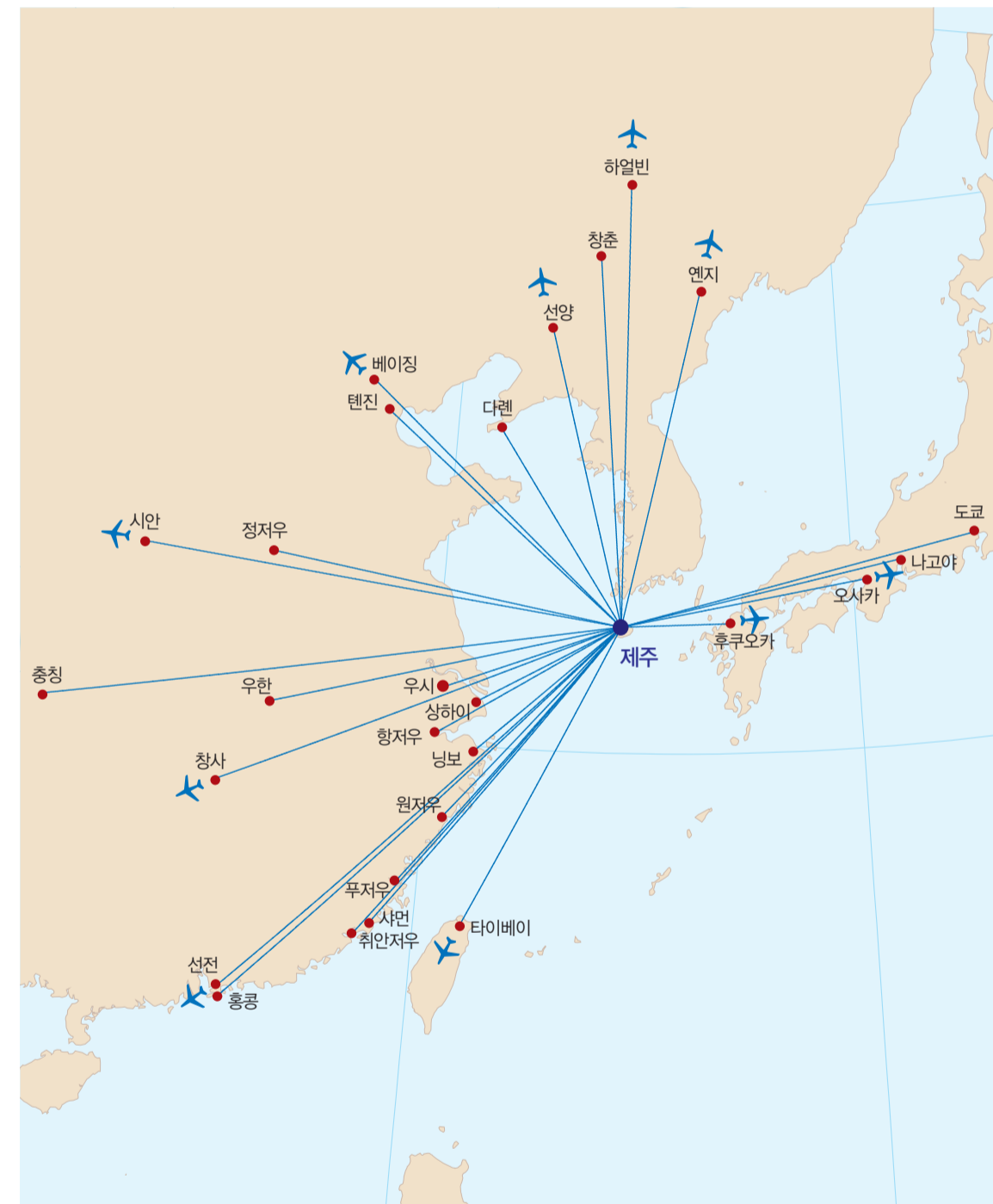
주: 2014년 12월 현재이전 고시 기준

특별 행정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섬 중심부의 한라산과 함께 수많은 오름과 용암 동굴이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인종되어 제주도는 전 세계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자연 유산이 되었다.

제주도는 독특한 생태계와 잘 보존된 자연 및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레저 및 휴양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고 있어, 서울(김포)-제주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 승객이 많은 항공 노선에 속한다. 제주도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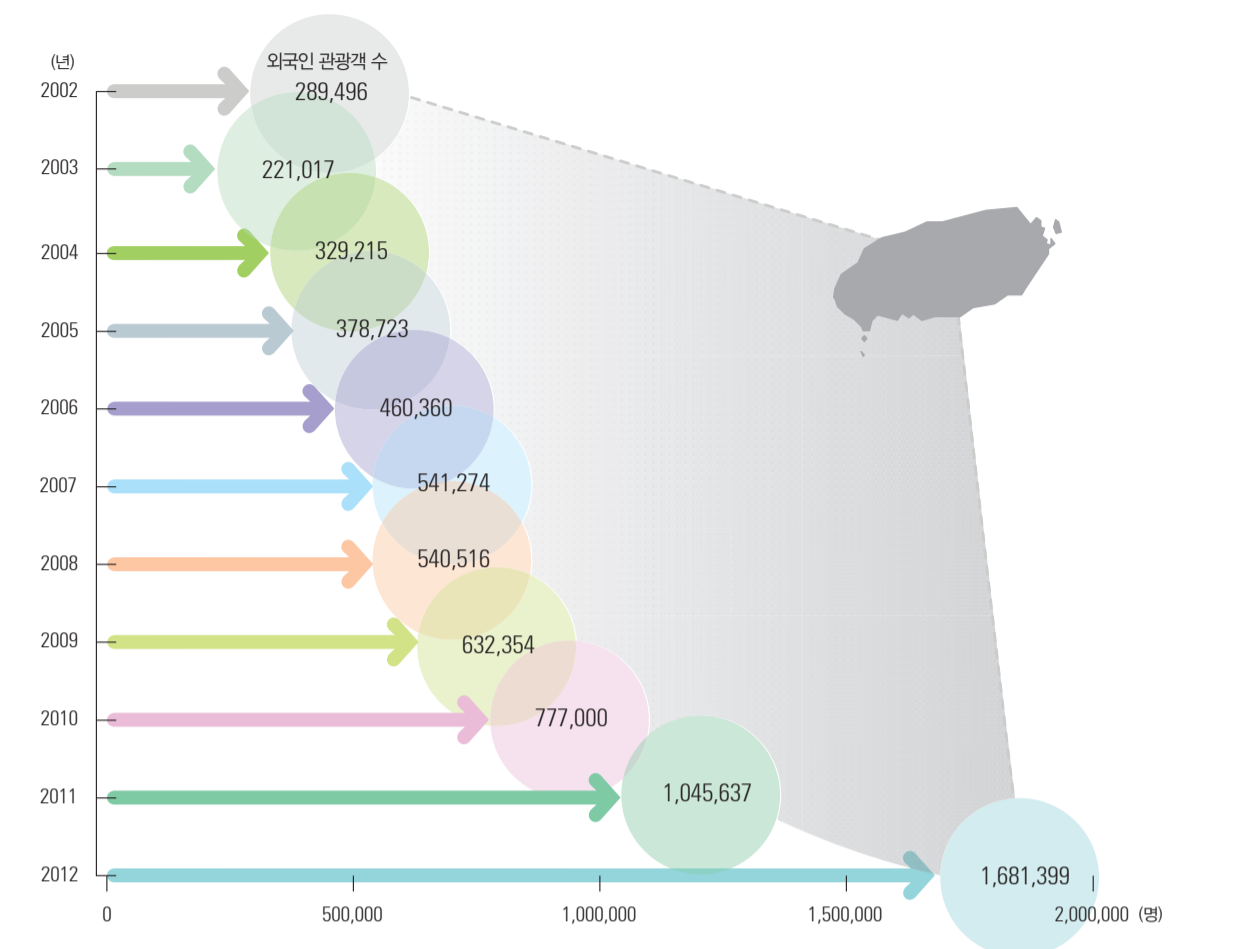
제주 국제 항공 노선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역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관광객 수



신방산



성산 일출봉

제주 국제공항 이용 여객

